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

채원영 연구원

-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내부의 뿌리 깊은 민족 간 갈등, 유럽대륙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EU와 EU의 세력 확장을 꺼리는 러시아, 셰일혁명에 따른 천연가스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져 발생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향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흑해와 인접한 국가로 옛 소비에트 연방 소속 국가들 중 인구, 경제 규모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국가임.
 - 우크라이나는 건국 이후부터 몽골, 오스만투르크, 폴란드, 소련 등의 지배를 거쳐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 확정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남부 5개 지방이 제외되면서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동-서 갈등의 원인이 됨.¹⁾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금융위기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가 악화되었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은 2012년 0.4%, 2013년 0.0%에 불과하였고 러시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13년 4/4분기까지 수출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음.
 - 러시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수요 둔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 이후 최저치인 1.3%로 감소하였음.²⁾

1)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5,706,100명으로 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인 17.3%, 크림타타르인 0.5%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 1인당 GDP는 3,861.7달러이며 2012년 기준으로 GDP의 10.4%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국토 대부분이 평지이며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소맥과 옥수수 수출량은 세계수출량의 5%, 13%를 차지하고 있음.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철광석은 전세계 매장량의 2.9%, 망간은 전세계 매장량의 22.2%, 석탄은 전세계 매장량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매장량은 약 1조 2,800억m³으로 추산되어 유럽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음.

2) 국제금융센터(2014. 2. 4), “러시아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 2013년 러시아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720억 달러 대비 약 54% 감소하여 2년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되던 EU와의 협정³⁾이 러시아의 압력으로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과 우크라이나계 민족(친 EU)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부지역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어 부유한 반면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임.
- 러시아는 2013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 규제를 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압적인 무역재제조치⁴⁾를 취하기 시작하였고, 10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압력을 가했음.⁵⁾
-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의 협정 체결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통상 관계 주력 방침을 발표하면서 반정부, 반러시아 시위가 시작됨.
- 이로 인해 12월 10일 우크라이나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1,135.6bp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대외자금조달 우려가 부각되었음.
 - 우크라이나의 2013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60억 달러, 총외채는 1,377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159억 달러로 대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대외적으로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동-서부 지역 간의 갈등 상황에 놓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EU의 협상이 중단되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하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⁶⁾ 참여 조건으로 가스공급가격 인하 및 추가자금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3) 우크라이나는 EU와 가입조약(Association Agreement) 및 자유무역(FTA) 협정을 진행하고 있었음. 우크라이나와 EU는 2012년 7월 FTA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 하였음(국제무역연구원(2013), 『주요국 FTA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

4)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2012년 기준 총수출의 25%, 가스공급의 60%를 차지함.

5) 우평균(2013, 12, 16), “2013년 푸틴의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EU 접근 좌절 과정”.

6)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2006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정상들이 2단계로 발족하기로 한 관세 동맹 중 1단계 관세동맹임. 2010년 1월 1일부터 3국을 대상으로 통합관세율, 통합관세법을 차례로 적용하였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 국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 3국간의 통관 절차를 모두 폐지함. 러시아는 이 관세동맹에 우크라이나 등을 참여시켜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식료품 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관세동맹을 이용한 경고를 하고 있음.

■ 2014년 2월 21일, 친 EU 성향의 우크라이나 의회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를 탄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⁷⁾

- 당시 러시아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친 러시아 성향을, 우크라이나 의회는 친 EU 성향을 띄고 있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가격 할인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27일 IMF에 15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 하였고, 이에 IMF는 새 지도부가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수행할 뚜렷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실사단을 3월 첫째 주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2014년 3월 2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⁸⁾에서 크림자치공화국의 의회, 정부청사, 공항을 점거하고 병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됨.

- 러시아는 2월 28일, 크림반도 벨벡 국제공항을 에워싼 후 경계태세에 돌입하였고 이후 3월 2일 흑해 함대 기지 병력을 동원하여 크림반도를 점령하였음.
 -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의 부동항으로 EU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임.
 - 러시아에게는 흑해로 나아가는 항구이며 에너지 수송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EU 및 서방국가들에게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곳임.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 항구 사용료의 반대급부로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할인 받아왔음.

■ 이에 3월 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군사 개입 철회를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개입함.

- EU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요량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이번 문제에서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7)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가 이끄는 과도 내각과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임시대통령이 5월 25일 조기 총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이끌 예정임.

8) 크림반도는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친선의 표시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된 이후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합병 논란 끝에 의회 투표로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었음. 러시아계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함.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비러시아계 중 일부는 강한 반러시아 정서를 가지고 있는 등 친서방주의자와 친러시아주의자가 공존함. 그러나 러시아인들 대부분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독일, 헝가리 등으로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변화 하려는 한편, 서방 자본을 유치하여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미 2013년 11월 5일 미국 석유기업 Chevron Corporation은 우크라이나의 셰일가스 채굴을 위해 100억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Royal Dutch Shell이 우크라이나 동부 8,000km²를 개발하는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채굴을 시작하기로 하였음.

- 2014년 3월 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서방세력과 러시아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적어도 5월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까지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BOA는 러시아의 직접적 전쟁 비용은 러시아 GDP의 3%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시장이며 유럽에 대한 가스수출(약 300억 달러) 차단 시 간접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음.⁹⁾
 - 그러나 5월 25일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방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임.
 - EU는 우크라이나에 금융 및 천연가스 분야의 경제지원책을 발표하고 11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원조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중앙은행 및 재무부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약속하였음.
 -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양자회담 등 군사협력 보류, 개인 비자발급 중단과 해외자산 동결 등 이란식 경제 제재를 검토 중임.
 - 현지시간 3월 6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결의하고 3월 16일 이에 대한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분할될 가능성도 있음.
 - 현 상황을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시장의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대립으로 해석을 한다면 5월 대선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9) 국제금융센터(2014. 3. 4),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 및 영향 점검”.

-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천연가스, 원유, 소맥 등 원자재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2년 말 기준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30%를 공급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2006년과 2009년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의 송유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WTI 현물가격이 최근 5개월간 최고치인 배럴당 104.72 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또한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및 소맥 주요 생산국으로 이번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3월 3일 하루에 만 4.9% 급등한 바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 2011년 기준 전세계 소맥 수출 비중 중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세계 8위, 옥수수는 13%로 세계 4위임.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EU와 러시아 간의 대립 지역이었으나 셰일 가스 개발에 따른 에너지 주도권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분쟁 지역이 된 것으로 평가됨.

(Wall Street Journal 등)